



New & Strong

(주)대우건설

변 화와 개혁이 기대되는 2003년도 계미년 새 희망의 아침이 밝았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제 자율 경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인력·조직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및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002년도에 수주 5조 5천억원, 매출 3조 5천억원, 영업 이익 3,20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65% 증가한 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전반에서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또한 2002년 시공 능력 평가에서 토목·건축 및 산업 설비 부문 1위와 종합 2위를 탈환하였고, 주택 공급 2년 연속 1위, 도급 잔액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정상급 건설사

로서의 위상을 되찾았으며, 수익성과 안정성에서도 명실상부한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30여년간 국내외의 수많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쌓아올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사업 부분을 핵심 Core 사업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대우건설은 1992년 월성 원전 3·4호기의 시공 주계약자로서 원전 건설 산업 분야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중수로 원전 시공 역사상 초유의 각종 기록을 달성하며 1999년 월성 3·4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시킴으로써 원전 건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대만 용문 원전, 중국 진산 원전 등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의 원전 건설 기술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해외 원전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

였다.

또한 KEDO 원전 건설 사업에도 시공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원전 건설 사업 수행을 통한 기술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우건설은 월성 3·4호기 공사 수행을 통한 중수로형(CANDU-PHWR) 발전소와 대만 용문 원전의 비등수로형(ABWR), KEDO의 경수로형(KSNP-PWR)까지 3개 노형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원전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어 이제 원전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원자력 발전 산업은 지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확실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반핵 운동과 석탄 등 여타 에너지원과의 비교 경쟁력 약화와 국내의 외환 위기 이후 전력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적으로 산업 생산의 회복과 함께 KSNP+·APR-1400 등 신규 원전의 개발과 건설 착수 및 국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태 이후 원전 건설 재개 계획과 몇몇 개도국들의 원전 도입 움직임 등으로 원전 건설 산업의 새로운 중흥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전 건설과 기술 개발을 확대하여 원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중흥기에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개방화 물결과 함께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한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러한 원전 시장 환경에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올해는 신규 원전의 발주 및 공사 착수와 함께 그 동안 다소 침체돼 있던 원전 건설 산업에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KSNP+, APR-1400 등의 기술면에서 진일보한 총6개 호기 3개 프로젝트가 착공 내지는 발주되는 만큼, 질적·양적인 면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기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건설은 회사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이러한 원자력 산업의 중흥기를 맞아 그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여온 만큼 그 주축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올 한해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 원전 사업의 주도적 참여

올해 새로 착수되는 3개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는 그 동안 회사가 쌓아온 원자력 건설 분야의 명성을 이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의 준비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전년도에 수주한 월성 TRF(삼중 수소 제거 설비) 공사도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중수로 분야의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에도 당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원활한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해외 원전 사업 수행 역량 강화

대만 용문 및 중국 진산 원전에 기술 지원 및 기자재 납품 등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기대되는 해외 원전 공사에 대비한 수주 및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도국에서의 원전 건설이 Financing을 동반한 턴키 방식으로 발주될 것임을 고려하여 국내 타 원전 사업자들과의 공동 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원전 신축 및 수명 연장 프로젝트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원전 사업 수행 시스템 구축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약 6~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단위 복합 공사로서 초기에 사업 수행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전체 공사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신규 원전이 착수되는 금년에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던 사업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회사의 ERP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업 조직과 수행 방안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사가 확정 공사비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현장 운영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여 원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시공 분야의 원전 사업 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토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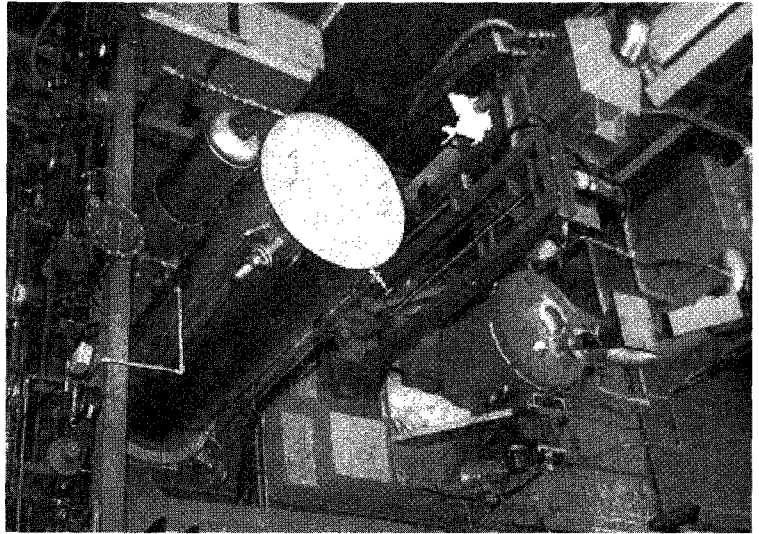
단위 요소 기술 개발

대우건설은 원전 사업에 참여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직·간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연구 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다.

월성 3·4호기 건설 수행시 3D CAD, 자동 용접 등의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직접 공사에 적용시킨 바 있다.

또한 국내 최상급의 시설과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 건설기술연구소에서는 타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원전의 안전성 증대 및 수명 연장과 관련한 원자력 구조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신규 원전은 합성 구조의 도입과 모듈화 공법의 확대 등 신기술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신공업의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상세 요소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또한 차세대 원전 등 향후의 새로운



대우건설은 회사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원자력 산업의 중흥기를 맞아 그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여온 만큼 그 주축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03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원전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지난 4반세기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그 규모 면에서 세계 5대 원자력 발전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설계·제작·시공 및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 표준형 원전의 기술 자립과 세계 최고의 원전 운영 실적이 보여주듯 규모에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산업의 성장은 그

규모나 기술면에서 국내의 타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선진화된 시공 기술과 사업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이러한 원전 건설 산업이 최근의 원전 경쟁력 강화 요구에도 부응하면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원전 건설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우건설이 그 중추에 설 것임을 확신한다.

대우건설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왔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강한 자신감으로!

우리 모두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대우건설이 열어 가겠다.

